

17세 광주체고 안세영 올림픽 강호 꺾고 세계무대 접수

배드민턴 프랑스 오픈 女 단식... 금메달리스트 카롤리나 제압 '우승'
시니어 국제무대 데뷔 2년만에 4회 우승... 도쿄올림픽 메달 기대감

'희미했던 도쿄올림픽 티켓이 보인다'
'서툰쪽 전체' 안세영(17·광주체고 2년)이 여자 단식 강자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프랑스오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피에르 쿠베르탱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750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을 2-1(16-21 21-18 21-5)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올해 4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한국 배드민턴을 넘어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강자로 우뚝 섰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시니어 국제무대에 데뷔한 안세영은 2년 차인 올해 뉴질랜드 오픈, 캐나다 오픈, 아키타 마스터스를 이어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했다.

올해 세계랭킹 99위로 출발한 안세영의 현 세계랭킹은 16위다.

결승전 상대 마린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비(非) 아시아인 최초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강자다. 부상으로 활동을 접은 기간이 있어 안세영보다 1단계 낮은 17위로 떨어져 있었지만, 지난달 중국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부활을 선언했다.

안세영은 1게임에서는 11-11까지 접전을 벌이다가 마린에게 연속으로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2게임에서는 15-15에서 내리 5점을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게임에서는 2-2에서 20-3으로 크게 격차를 벌려 마린을 완벽히 따돌렸다.

프랑스오픈은 BWF 월드투어 중에서도 상급 대회로, 도쿄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포인트가 많이 걸려 있어서 상위 랭커들이 대부분 참가했다. 프랑스

오픈은 안세영이 우승한 대회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대회다.

안세영이 프랑스오픈 우승을 확정하자 현지 중계진은 "스타가 탄생했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안세영은 목표로 잡은 도쿄행 티켓을 사실상 확보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경우 내년 5월 초 발표되는 세계랭킹에 따라 출전권이 결정된다. 안세영이 포함된 여자단식의 경우 세계 16위까지 2명을 보유할 경우 국가별 최대 2명이 참가할 수 있다.

안세영이 도쿄올림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6위 확보와 함께 선배들을 뛰어 넘어야 했다.

지난 5월까지의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성지현과 김가은, 김효민에 밀려 여자 단식 4위였다.

2년차인 올해 안세영은 뉴질랜드 오픈, 캐나다 오픈, 아키타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의 월드투어에서 착실히 포인트를 쌓아 세계 16위까지 도약했다. 현재 국내 선수로는 성지현(11위)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이번 프랑스 오픈 우승으로 5계단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세영은 내년 5월까지 출전하는 대회에서 8강 정도만 유지한다면 무난히 도쿄행 티켓을 거머쥘 전망이다.

김명자 광주체고 배드민턴부 감독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도쿄 올림픽 출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번 우승이 750 등급 대회 최연소 우승기록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목표는 도쿄 올림픽 메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세영은 다음달 19일 안방에서 열리는 광주 코리아 마스터 월드투어 슈퍼300 대회 여자단식에 출전한다. /김한영 기자 young@연합뉴스



지난 27일(현지시간)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750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강력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고 엄지성 'U-17 월드컵' 천금골

한국 조별리그 C조 1차전 아이티에 2-1 승... 31일 프랑스와 2차전

엄지성(금호고 2년)이 행운의 골로 대한민국의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16강 진출에 청신호를 쏘았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28일 브라질 고이아니아 세히나 경기장에서 열린 2019 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전반 12분 엄지성의 행운의 골을 앞세워 아이티를 2-1로 제압했다.

한국은 4-3-3 포메이션으로 아이티를 상대했다. 주장 신승훈(금호고)이 골문을 지켰고 양 날개에 엄지성(금호고)과 김문성(포항제철고)을 배치했다.

한국은 전반 36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상대의 반칙으로 프리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엄지성이 골문에 바짝 붙어 킥을 올렸다. 아이티의 골키퍼는 엄지성의 프리킥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볼은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행운의 첫골이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빠른 역습과 전방압박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갔다.

한국은 전반 41분 상대의 드리블을 끊은 뒤 문전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오재혁의 왼쪽 측면 어시스트를 문전에서 공격수 최민서가 마무리하며 2-0으로 전반전을 끝냈다.

위기도 있었다. 후반 35분 '2002 월드컵의 주역' 이을용(제주 코지)의 아들 이태석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다. 한국은 후



반 44분 아이티가 생트에게 실점을 허용했지만 추가 실점을 막아 승리를 지켜냈다.

엄지성은 첫 골에 대해 "반반이다. 50%는 의도했다. 프리킥 상황에서 경기가 약간 지연됐는데 상대 골키퍼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오느라 봤다"며 "그래서 수고와 크로스 중간과

도로 올렸는데 들어갔다. 수비수에 가려서 골이 들어가는 순간은 보지 못했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와서 골이 들어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이티, 프랑스, 칠레와 이번 월드컵에서 C조에 포함됐다. 조 1, 2위와 조 3위 6팀 중 4위 안에 들어가 16강 진출이 가능하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획득한 한국(골득실+1)은 칠레를 2-0으로 물리친 프랑스(승점 3·골득실+2)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득실에 밀려 C조 2위에 올랐다. 한국은 오는 31일 오전 5시 프랑스와 C조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뎅이' 우즈

PGA 통산 최다승 타이 82승 달성... 성추문·부상 슬럼프 극복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에게 2019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다.

올해 4월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에서 우승, 2008년 US오픈 이후 11년 만에 메이저 대회 왕좌에 복귀한 우즈는 28일 일본 지바현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총상금 975만달러)에서 우승했다. 투어 통산 82승째를 따내며 샘 스니드(미국·2002년 사망)가 보유한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우즈는 조조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합계 19언더파 26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즈는 2009년 성 추문 이후로 허리 부상으로 고생하며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2012년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성 추문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하며 재기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2014년 초 허리 수술로 인해 선수 생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그랬던 우즈가 올해 4월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이번 대회에서는 투어 최다승 기록 보유자로 이름을 올리며 2019년을 '우즈의 해'로 만들었다.

우즈는 올해 마스터스에서 우승, 메이저 15승을 달성해 앞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세 번 더 우승해야 니클라우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 /연합뉴스

구슬땀으로 익어가는 'KIA의 가을'



KIA 타이거즈 한승택이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홈백전에서 타격을 하고 있다. KIA는 이날 마무리킥 첫 연습경기를 갖고 전력을 점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윌리엄스 감독 연습경기로 옥석 가리기... 투수 11명 마운드 올라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KIA가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홈백전을 치렀다. 지난 14일 훈련을 시작한 KIA의 캠프 첫 연습경기 일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선수들의 실제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민우를 내세운 홍팀은 최원준(중견수) 황윤호(2루수) 박준태(좌익수) 유민상(1루수) 이정훈(포수) 이진영(우익수) 백승환(지명타자) 고장혁(3루수) 김규성(유격수)으로 라인업을 꾸렸다. 최정용(2루수) 김민수(중견수) 오선우(우익수) 이우성(좌익수) 박진두(1루수) 한준수(포수) 민경남(3루수) 한승택(포수) 이원빈(유격수)으로 구성된 백팀 선발은 홍건희가 맡았다.

6회초까지 진행된 경기는 투수들이 1이닝씩 책임지면서 홍건희, 이민우, 김기훈, 이준영, 하준영, 양승철, 박서준, 서덕원, 박정수, 장지수, 김승범 등 11명이 마운드에 올랐다.

결과는 4회초 선두타자 황윤호의 안타를 시작으로

로 박준태의 2루타, 그리고 유민상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2점을 뽑은 홍팀의 2-0 승리였다.

올 시즌 1군 마운드에서 역할을 했던 이민우, 김기훈, 이준영, 하준영은 모두 삼자범퇴로 역할을 끝냈다. 홍건희가 선두타자 최원준을 내보냈지만 유격수 실책이 기록됐다. 이민우가 최고 145km를 찍었고 홍건희(144km), 하준영(141km), 김기훈(140km)도 140km대 직구를 구사했다.

서재용 투수 코치는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직구로 빠르게 카운트 잡아가는 부분이 좋았다. 올 시즌 1군과 2군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있었다. 이번 캠프에서는 피칭을 많이 해 몸을 잡아주고,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투고타저'의 양상 속에 투-타의 반응은 조금 달랐지만, 캠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같았다.

8개의 공을 던진 하준영은 "결과가 만족스럽다. 슬라이더(3개)가 잘 들어가서 좋았다. 올 시즌 끝나고 확실한 변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준

비 잘했고, 캠프도 잘 치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승 득점을 기록한 황윤호는 "첫 타석에서 공은 보이는 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웃음). 오랜만에 하는 경기라 감이 떨어졌다.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훈련도 잘하고 있고, 오랜만에 경기하니 재미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만족스럽다"며 첫 실전을 평가했다.

이어 "투수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타자들은 오랜만에 공을 봤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캠프에서 세 경기를 더 치르는 동안 선수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몇 차례 수비 시프트를 지시했던 윌리엄스 감독은 "다음(경기)에는 선수들의 스피드를 볼 것이다. 오늘은 도루, 주루 부분을 주문하지 않았다. 히트앤런 같이 작전도 구사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주자들의 움직임도 볼 것"이라며 "수비 시프트도 활용하고 수비에 대한 부분도 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